

### 공동체 소식

#### 사순시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재의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받으며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찰과 회개의 때, 은혜로운 사순시기입니다. **자선**은 믿음을 낳고, **기도**는 사랑을 가르치고, **단식**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게 합니다. 금육(금요일)과 단식(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규정을 지키며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 아름다운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고해성사는 미사전에 드립니다.(합동판공성사 없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구역반모임을 통해 전달된 라이스보울(CRS Rice Bowl)을 하루 \$1씩 40일간 모으셔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5일)에 봉헌 바랍니다. Rice Bowl 없으신 분들은 구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태오 복음(28장) 1장씩 매일 읽기**

#### 흑인과 인디언 선교를 위한 2차헌금

-**8일(일)**: 흑인과 인디언 선교를 위한 2차헌금(Black and Indian Missions)은 교구들에 맞게 주어져 미국 내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복음화(교리교육과 학교 교육 지원, 신앙공동체 형성과 행사 지원, 사제 양성)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 전례부 회의

-3월 8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평협회의

-3월 15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신심미사 안내

-사순/부활시기는 신심미사가 없습니다 (미사총지침 373-376항)

#### 2020 신앙여정 점검표

-2020 신앙여정 점검표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1년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여 보다 개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성방법은 반모임에서 확인바랍니다**)

####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매월 둘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일시 : 3월 14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135th TurnStyles Thrift Store

-3월 8일까지 봉사부장에게 신청

#### 교무금 계좌이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Guidelines for the Flu Season and the Sacred Liturgy

-게시판/본당홈페이지 참조

#### 구역/반모임

-1구역 1반 14일(토) 7시 조지연 마리아 가정

-2구역 1반 13일(금) 7시 김정원 베드로 가정

-3구역 1반 27일(금) 7시 홍순익 마르티노 가정

-4구역 1반 28일(토) 7시 강승호 아오스딩 가정

-4구역 2반 27일(금) 7시 김동술 세례자 요한 가정

구역반장 모임 29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Holy Trinity 본당 행사관계로 오늘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123	219	174	119
차 주	117	215	180	121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차상욱 펠릭스	송진희 모니카
차 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녜스

####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김정원 안젤라	김하울 루카 김가온 토마스
차 주	김정빈 바오로	차한나 가브리엘라 강윤후 그레고리오

####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 라파엘, 차상욱 펠릭스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호 아오스딩

#### 애찬 봉사자

금 주	문문주 엘리사벳, 장유정 마리스텔라, 송진희 모니카
차 주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김인자 글라라, 안혜진 임마콜라따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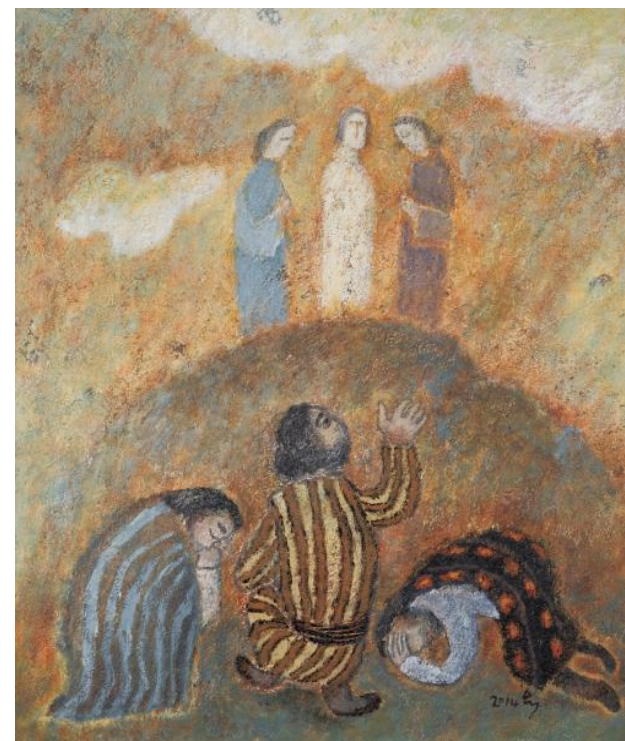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선조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번모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신비를 온 삶으로 받아들여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 그림 묵상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마태 17,2-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창세기, 12,1-4 <아브라함을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시다.>

화 답 송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 서 : 티모테오2 1,8-10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 마태오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생명의 말씀

## 위안을 주는 기도 생활



혹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를 타고 드넓은 초원과 구름 위를 나는 두 주인공이 마주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배경에 들리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장의 아름다운 선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음악 작품은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음악을 들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복잡한 속세를 떠나 잠시 고요와 평화를 찾아 산을 찾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그 평화로운 장면 말이죠.

예수님은 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특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예컨대, 마태 14,23; 24,3 등 참조). 보통은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지만,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찾으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에게 좋은 기도 체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쁨과 위안을 얻

었던 모양입니다. “주님, 저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쭈욱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발언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나 신앙 생활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받은 마음의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빨리 사라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체험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어쩌다 만나게 되는 것처럼, 특별한 기도 체험 역시 아쉽지만 가끔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비정기적’이고 짧은 체험만으로도 삶의 온갖 무게를 이겨낼 힘을 우리는 꼭 얻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시편 23,4)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신부가 온전히 자신들이 사목하는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를 일컫는다.

신자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전통은 이미 3세기경부터 나타난다.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트리엔트공의회에서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이는 자기 양들을 위해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바 있다.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1744년 본당사목구 주임들이 주일과 의무축일에 교중미사를 드리도록 정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교회는 교회법 제388조와 제534조를 통해 교구장 주교와 본당사목구 주임이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중미사 거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이를 시키거나 다른 날을 정해 빠뜨린 만큼 교중미사를 바치라고 정하고 있다.

교중미사에 관련된 한국교회의 규정은 1985년 정해졌다. 한국교회가 교중미사를 봉헌하도록 정한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다.

가톨릭신문

# 이 말이 궁금해요

## ▣ 교중미사(敎中-, Mass for the people)

-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

본당에 가면 매주일 ‘교중미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혹여 미사지향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교중미사는 미사예물을 봉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교중미사에서 ‘교중’이란 교회 안의 신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교중’의 ‘중’은 무리를 뜻하는 중(衆)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교중은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안에 있는 이’(1코린 5,12 참조)라는 성경의 말을 번역했다. 따라서 ‘안’을 의미하는 중(中)을 사용해 교중이라고 말하며 교회 안의 신자들을 의미한다. 현재는 교중미사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즉 교중미사란 교중(敎中), 교회 안의 신자들을 위해 바치는 미사를 말한다. 특히 한 지역의 신자들을 담당하는 사목자인

# GUIDELINES FOR THE FLU SEASON

When we gather to celebrate the Eucharist, our primary concern is our attentive participation in the Church’s sacrifice of praise and thanksgiving.

However, in any public gathering of people, the sharing of germs and pathogens is inevitable. In the midst of this cold and flu season, each of us has the fraternal responsibility of taking precau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contagious illnesses. **Frequent hand-washing, covering of the mouth and nose when coughing and sneezing, and regular habits for disease prevention, especially in high-risk areas, should be common practice.**

**As we face the possibility of a severe viral outbreak in our community, and with reports of the significant threat worldwide of the so-called Corona virus, greater attention is required to keeping one another healthy.** Some practical steps, along with common sense, are critical to achieving this.

**WHAT IS THE CONCERN?**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whether the sharing of the communion chalice during Holy Communion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the flu and any other contagious diseas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notes:

“Most healthy adults may be able to infect other people beginning one day before symptoms develop and up to five to seven days after becoming sick. Children may pass the virus for longer than seven days. Symptoms start one to four days after the virus enters the body. That means that you may be able to pass on the flu to someone else before you know you are sick, as well as while you are sick. Some people can be infected with the flu virus but have no symptoms. During this time, those persons may still spread the virus to others” (CDC, October 5, 2017).

**Those at higher risk of contracting the flu include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women who are pregnant, individuals age 65 and over, and anyone suffering from a compromised immune system** (CDC, February 6, 2018).

### SHOULD YOU COME TO MASS?

**The obligation to attend Mass on Sunday and other Holy Days of Obligation is the ordinary expectation for Roman Catholics (Canon 1247).**

Howev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uch as sickness or severe weather excuse the faithful from this obligation. **If you suspect you have the flu, or are suffering from a serious cold or other contagious illness, please stay at home and do not risk spreading infection to others.**

### HOLDING HANDS DURING THE LORD’S PRAYER.

Well-intentioned folks introduced this practice into parishes in the 1980s. **Although holding hands can be a beautiful expression of people united in prayer, this gesture is neither envisioned nor encouraged by the Church as a proper liturgical action or gesture in any of her documents governing the**

**Sacred Liturgy, and therefore, is neither called for nor required. It is most fitting to pray the “Our Father” with hands folded in prayer.**

### THE SIGN OF PEACE.

Congregants should not take offence should others choose not to shake hands with their hands during the sign of peace. An appropriate gesture for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spreading the flu virus might be to simply clasp one’s hands together and, **simply say, “Peace be with you.”** It should be further noted that, while the greeting of peace exchanged between the **priest and the congregation is required at Mass**, the actual exchange of a sign of peace among the congregants at Mass is not (cf. Roman Missal, Order of Mass, 128; General Instruction of the Roman Missal, 154, 181).

**RECEIVING HOLY COMMUNION.** Roman Catholics believe that both the Body and the Blood of Christ are fully present in the Holy Eucharist under the forms of each of the consecrated species; **whether one receives only the Host or only the Precious Blood, one receives the fullness of our Lord’s sacramental presence.** While the Church permits reception of both forms at Mass, as a fuller sign of sharing in the Lord’s Supper, such a practice may not always be possible. Those feeling ill, or who suspect that they might have been exposed to a contagion, should refrain from receiving Holy Communion from the chalice, and receive only the Sacred Host. Likewise, extraordinary ministers feeling ill, or who suspect that they might have been exposed to a contagion, should refrain from distributing Holy Communion under either species. **Please note that it is never permitted nor appropriate for a communicant to dip the Host into the chalice; additionally, such an illicit practice may still directly contaminate the chalice.**

Finally, pastors are granted by liturgical law to exercise discretion in distributing Holy Communion from the chalice, and may, without need for episcopal oversight, suspend or discontinue administering Holy Communion under both forms, especially depending on the potential severity of an outbreak of contagious disease within the parish boundaries.

**HEEDING MEDICAL ADVICE.** Anyone having been told by a medical advisor that they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infection or to complications due to the flu or other communicable diseases should refrain from practices that might cause an illness, including the shaking of hands, the reception of Holy Communion on the tongue, the consuming of the Precious Blood from the Chalice, etc. All communicants aware of their being, or having been, ill should consider it their moral obligation to avoid these same practice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and contagious disease.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주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2.26 -